

축산업계 소식

오봉국박사 회갑기념행사 개최 —한국가금발달사 증정식도—



(오봉국 박사)

梧堂오봉국박사(서울농대교수)의 회갑을 맞아 회갑기념 행사를 오는 10월 5일(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강당에서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후학들이 기념지 '한국 가금발달사'를 발간, 증정식도 갖을 예정인 바 동문, 제자, 유관업계 인사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오봉국박사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로 서울농대 축산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1952) 하고, 미국미네소타 가금석사(1957), 호주 시드니대학원 농학박사(1968) 학위를 받은바 있으며 1952년 이래 서울대농대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본회 전신인 한국가금협회 3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오박사는 현재 본회 자문위원이며 (검정위원장), 서울농대 도서관장, 한국가금학회 회장, 한국

육종학회회장으로,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 농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축협중앙회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한국 축산학회장, 육종학회회장,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현재겸임)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양계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8년도에 가금대상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1982)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은 바 있다.

'85년 한국 계우회 총회

—한 순회장 피선—



(한 순 회장)

한국계우회는 지난 8월 30일 계우회 사무실에서 '85년도 정기총회를 대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84년도 업무보고와 85년도 사업보고에 이어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새로 개편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 순(홍일농장)

부회장: 이학복, 이광우, 이종선, 박상대,

최명훈

감사: 안태식

총무: 이성근

농촌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도농간 격차 해소, 농민이익대변
기구 확충, 유통개선문제 다뤄 -



△ 농촌문제 개선방향 토론회

「농촌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현대사회연구소(소장 윤양중) 주최로 8월26일 동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농가부채의 누적,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민이익 대변기능 미흡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는 오늘의 농촌현실에서 그 원인과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농수산 관계 단체·기관 농민 등 150 여명이 참석, 시종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화여대 김동일교수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동」에서 현재 우리의 농촌은 사회구조·문화 면에서 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국근대화가 초가집을 양철집으로 바꾸는 눈요기식이 되어왔기 때문이며, 경제성장은 농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최근 국제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서 농업부분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농업부분의 성장에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앞으로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농촌 및 농민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확대

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촌이익 대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에서 서울대 왕인근교수는 '현재 농촌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농협 등 기존의 기구도 정부주도, 중앙집권식 경영관리, 농민조직화의 미성숙, 경영자율성의 미흡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해 왔다'고 전하고, '농촌이익 대변조직의 확충과 아울러 기존 기구의 자율화가 필요하며, 언론매체가 적극 참여하여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박사는 '70년대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가격 불안정 및 유통부조리의 주요인은 유통물량의 급증에 상응하는 시장체계의 확대 개편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에 있으며, 시장이 생산 및 소비변화에 대해 시차적 적응을 하지 못해 폭등,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신행박사는 '한국의 농산물가격은 계절변동, 주기변동, 추세변동이 심한데 70년대 후반부터 채소·과실, 일부 축산물의 실질가격이 하향추세에 있어 가격정책도 가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상업농시대를 맞아 2000년까지 농산물가격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허박사는 계속해서 '유통개선의 요체는 경쟁과 공정성에 있는데, 경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농민·상인간의 시장교섭력 강화, 도매시장의 근대화, 등급 및 규격화, 시장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KBS 이계익 해설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농축산물 수입, 농민대변제도 강화, 가락동시장 제기능 발휘, 이농현상, 농산물 저질화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김남용(낙농육우협회 전무)

김석준(전북 김제, 농업)

김성숙(소비자연맹 홍보부장)

김영태(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원장)
김한곤(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이내수(농협중앙회 차장)
이은명(문화방송 해설주장)
황민영(농축수산 유통연구원 유통정보실장)

바이엘, 바이오백 백신 생산

— GMP시설에 의해 11월중 선보일듯 —

한국 축산의 예방의학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 완공된 한국바이엘화학 백신공장에서 그동안의 시험생산과 검정과정을 거쳐 그 역가의 우수성이 입증되므로써 본격생산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공장 완공후 생산개시까지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시설의 점검과 시험생산 및 자체 검정과정을 거치는 등 완벽한 제품생산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작업장의 성질에 따라 양압, 음압이 자동 유지되고 냉·난방 및 온도, 습도가 자동조절되는 등 국내 최초로 완벽한 GMP(우수의약품 생산 기준) 시설을 갖춘 바이엘화학에서 11월 중순부터 생산될 백신의 공동명칭은 바이오백(Bayovac)으로 이는 독일, 브라질,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백신의 공동명칭이다.

예방의학시대를 맞고 있는 현대에 있어 가축체 내에 면역체계를 완성시켜 질병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질병퇴치의 첩경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 백신에 대한 관심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경영개선 결의대회 개최

— 전국 축협조합장 등 300여명 참석 —

최근의 축산 불황과 관련, 축산문제는 축산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지기 위한 축산경영개선 결의대회가 전국 축

협조합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5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허신행(농경연)박사의 소값 안정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종민 축협부회장이 주재한 조합장회의에서는 조합장의 공인적 자세,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과 그 효과 및 전망, 회원조합 지원대책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장기적인 소값하락, 낙농 불황으로 인한 우유체화 문제, 주기적인 양돈가격의 등락 등 축산전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인들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SIMAVIP 전시회

— 집약식 축산기계·기술 전시, 파리에서 —

집약식 축산(양계, 양돈, 육우, 양토)을 위한 기계 및 기술 전시회인 제 2회 SIMAVIP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Nord Villepreinte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의 주요전시품목으로는 가축사, 각종 사양 관리용 제품 및 기구, 분뇨의 수집 및 저장과 연료화를 위한 설비, 위생 및 질병치료를 위한 제품 및 기자재, 축산물 포장기계, 품종번식 및 가축계통작출에 필요한 기자재 등이다.

또한 전시기간중 매일 축산기술에 관한 연구발표와 세미나가 실시되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 16 오전—집약식 축산 및 환경
오후—에너지와 집약식 축산

10. 17 오전—양돈축사 및 환경

10. 18 오전—현 경제상황하의 양계 및 양돈기술

10. 19 오전—집약식축산의 미래시장

자세한 것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실(734-9032/4)로 문의하면 된다.

천호그룹 천호부회장 대구에 설립

— 영남지방 양계업자 기대 커 —

천호그룹 <주>천호부회장(대표 이계조, 서정환)



(이계조 사장)

이 영남지방의 양계 사양관리기술의 보급과 적극적인 양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장거리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부화장은 영천에 부지 3천여평에 건평 350평, 대형부화기 10조(입란능력 90만개, 주 26만개)를 가설하여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으며, 10월 초순에 개업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본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12번지

전화: 72- 3224, 72- 4588

사료제조기술 단기과정 개설

- 캔사스주립대, 미국사료협회 주관 -

Kansas 주립대(Kansas State University)와 미국사료협회(American Feed Industry Association)는 사료제조기술에 관한 단기과정을 1986년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KSU에서 갖는다.

이 단기과정의 목적은 사료제조 분야의 인사에게 강의, 토의, 실습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개념을 습득시켜 실무지식을 넓혀주는 데 있다.

총 80시간의 강의내용을 보면 50시간 내외의 공장설계 및 운영, 12시간의 품질관리 외에도 사료 배합, 인사관리,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기과정에서는 해외훈련생을 48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인데, 교육비용은 2인1실의 숙식비, 교재, 기타 준비물 포함하여 1,575불이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희망자는 신속히 USFGC로 문의하기 바란다.

EEC 곡물가격 1.6% 인하

EEC의 85/86년도 곡물가격이 농수산장관회의의 양해에 따라 1.6%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양해된 인하율은 지난 2월 EEC에 의해 제안되었던 3.6% 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며, 최근 회의 벽두에 제안되었던 1.8%보다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인하율 3.6%는 앞으로 2년동안 매년 1%씩 추가로 인하하여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농수산장관회의는 이번 인하율이 채택되어도 국경보호제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국경보호제도는 생산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율의 가격인하를 다음연도에 단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1984년의 기록적인 곡물생산으로 EEC는 1985/86년에 곡물가격을 5% 인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5%의 곡물가격 인하를 주장한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아 유채가격의 3.6% 이하도 2.6% 수준에서 타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상원, 곡물생산 통제법안 부결

대두 및 사료곡물의 의무적인 재배면적 규제를 통한 생산조절 및 론·레이트의 상향조절을 위한 법안이 미상원 농산 위원회에서 11:5로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생산 통제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하원 농산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ASA 측에서는 생산은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 농민 스스로 결정해야 될 점을 내세워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또한 생산통제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조작은 필연적으로 대두 및 대두관련 제품 가격의 앙등을 초래 함으로써 미국내 소비자 및 해외수입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업계단신



○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 동사 예재길 연구 개발부 과장과 황성수 영업부 주임이 미국 살스버리사와 미국 바이엘(Bayvet Co.)의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 3주간의 기술습득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들은 8월 12일~22일까지 살스버리사에서 돼지 닭질병의 최신 진단 기술과 방역 프로그램 습득을 위한 교육에 참가한 후 23일부터 8일간은 바이엘(Bayvet Co.)에 머무르면서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한편 동사는 국내 처음으로 양식사업에 필요한 기술정보지 「바이엘 양어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양어정보의 주요 내용은 해산어류 양식사료의 영양개선, 담수어의 사양관리, 양식어류의 아가미병, 어류의 외부 기생충증, 일본의 뱀장어와 송어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4×6배판 40p. 구독신청은 한국 바이엘화학 학술부로 하면 된다.

○ 대한특수기계(대표 고증현) : 일본의 자동 세란 선별기 제조 전문 회사인<주>에그날 전기 제작소와 기술 제휴 및 중요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대량의 계란을 고도의 정밀도로 신속하게 위생 처리할 수 있는 전자 평량선결방식의 자동 세란선별기(DHG 2000)를 생산하게 되었다. (1일 8시간 가동으로 9TON처리, 20,000란/시간)

이는 우리 나라 양계 산업의 기계화를 선도해 온 동사의 꾸준한 개발과 노력의 결정이며, 앞으로 축산물 위생 처리법 등 강화되고 있는 규제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신선한 위생란의 공급으로 계란 유통 구조에 있어서 급속한 판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사에서는 대량의 G. P. 센터나 대규모 양계단지 이외의 각 단위 양계장 및 계란 수집도 매장, 슈퍼마켓, 계란 소매상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종들도 생산하고 있다.

○ <주>동방(대표 이각모) : 서울사무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6 삼광빌딩 404호

• 전 화: 244-1541~3 (중전과 동일)

• 텔렉스: K23336 DONBAH

• 케이블: DONBAHCH SEOUL

○ 덕수가축약품상사(대표 박길수) : 소 돼지의 번식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9월 6일 사료 협회 회의실에서전국 양축가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 돼지에 있어서 양축가들의 호르몬제 남용으로 의외의 번식장애 등을 일으켜 피해를 보는 양축농가가 많아, 올바른 호르몬제의 사용과 번식관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 원용택전무·김덕명상무·이재문이사 승진 : 대한사료(대표 김상태)는 사세확장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원용택전무(전 상무), 김덕명상무(전 이사), 이재문이사(기획실장, 전 영업부장)를 지난 8월 27일과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하고, 경명현생산부장을 영업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원용택 전무) (김덕명 상무) (이재문 이사)

○ 천호부화장(대표 이계욱)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로 영업부 광영주차장(전 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 마니육종(대표 이계욱) : 영업의 쇄신을 위하여 영업부 김태환계장을 과장대리로 지난 8월 1일부로 승진발령하였다.

○**풍념산업(대표 김봉춘)** : 동사는 사세 확장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했다.

이전일자: 85. 8. 31

사업장: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0-65

전화: 902-0893·4933·5544(전과 동일)

○**노용덕전무** : 한일사료(주) 전무이사로 취임, 노용덕전무는 부국사료(주), 남성산업(주) 전무를 역임한 바 있다.



(노용덕 전무)

○**진양사료(대표 강성배)** : 동사의 전화번호가 8월 6일자로 변경되었다.

변경번호: (0541) 52-3221~5

한편 동사는 지난 7월 5일 김봉환(경북대 수의학과) 박사를 초빙, 동사세미나실에서 「최근 다발하는 양돈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양수의약품(대표 조훈영)** : 동물약품 전문 메이커로서 항상 새로운 약품을 개발, 판매하는 동사는 영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영업부직원 이지선씨(강원대 축산학과 졸업)를 신규 채용하였다.

○**동서농산<주>(대표 장세호)** : 부산 및 동부 경남지역 양축가에게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8월 20일부로 부산출장소를 개설하고, 지역영업활동의 보강을 위하여 8월10일자로 영업부에 박기홍(동아대 축산과졸: A-4 지역근무), 홍연수(대구한성가축약품: A-1 지역근무)씨를 신규 채용했다.

한편 본사를 지난 8월 8일자로 마산공장으로 이전하였다.

• 주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172-25

• 전화: 53-9646

○**보거사료(대표 마영호)** : 사세확장과

영업의 쇄신을 위하여 지난 8월25일부로 박영홍영업부 차장(전 한양수의약품)을 영입하였다.

○**천호그룹** : 홍보실(실장 이해철)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우의를 도모코자 지난 8월 25일 포천군 만세교에서 자연보호를 겸한 촬영대회를 갖고, 직원의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를 마쳤다.



△천호그룹 홍보실 가족들

○**삼양약화학(대표 민경우)** : 사세확장과 기획업무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일부로 기획부과장에 김광연(전 과학사료)씨를 특채했다.

○**퓨리나·코리아(대표 Juan gar gallo)** : 소비자의 호응에 적극 보답하고, 우수한 사료생산을 위하여 낙농, 비육, 특별사료담당 부장에 박호인(전 화이자)씨를 9월 1일부로 영입했다.

○**천호인티그레이션(주)(대표 김명근)** : 닭고기 소비촉진홍보산업의 일환으로 닭고기선물상자를 판매한다. 날개, 가슴살정육, 다리살정육, 통다리살 등 신선육 부분육을 플라스틱 선물용기에 포장하여 소비자가가격을 1만원선에 맞추어 출하하는 선물세트는 한가위명절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에 많은 기대가 된다.

축산관련업체에서는 한가위 선물과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덕희, 전농수산부차관 별세** : 장덕희 전 농수산부차관이 지난 7월31일 숙환으로 별

세했다.

향년 62세로 농수산부 양정국장, 국립 종축원장 수협회장 등을 거쳐 농수산부차관, 농협중앙회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 <주>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한화섭)

: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의약품을 자체개발하여 외화의 절감과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가에게 공급해온 동사는 85년도 중점사업 목표를 우수약품 신규개발과 제품의 품질향상에 두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고급인력을 이미 확보하는 한편 시설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지원받아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과 정밀기기의 도입등 시설의 근대화조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품질면에서 더욱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원화학(대표 이용남): 지난 5월초 양계용 종합 영양제 「비타피드-P」를 1 차로 해외에 수출한데 이어, 8 월초에도 양계용과 더불어 낙농용 종합 영양제인 「비타피드-DC」를 2 차로 수출했다.

○이화약품(대표 이정협): 동사는 현대적인 축사소독의 새로운 개념 확립과 기술혁신을 꾀할 목적으로 국내외의 저명 강사를 초빙, 9 월 26일 서울 엠배서더 호텔에서 약300명을 대상으로 신제품 발매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양헬트공업사(대표 장인섭): 중부 지역의 원예작물 재배 및 양축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 9 월 1 일자로 대전출장소를 개설하였다.

대전출장소: 대전 253-9258~9

○오봉국박사(서울농대교수): 오는 9 월 20일(금) 오후 2 시 강남 역삼역소재 감람교회에서 차녀의 결혼식을 갖을 예정이다.

◆ 신제품 ◆

안텍 롱라이프,
안텍 오오사이트 시판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에서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사전 방역으로 질병발생의 조기 방제를 위해 축종과 질병,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독제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영국 안텍사의 원료공급으로 생산된 신제품은 양계전용 광범위소독제 「안텍롱라이프」와 곡시듬 살멸전용소독제 「안텍오오사이트」 그리고 양돈 전용소독제 「안텍 팜플루이드」로 종전의 소독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소독제이다.

「안텍롱라이프」는 지속성 효과를 지닌 양계전용

소독제로서 살바이러스 및 살균, 살충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광범위 강력 소독제이다.

「안텍오오사이드」는 콕시듐 살멸 전용 소독제로서, 종전의 소독제가 미성숙 오오시스트를 살멸시키기 힘들었고 특히 성숙 오오시스트에는 거의 살멸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데 반해 「안텍 오오사이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 성숙, 미성숙 오오시스트를 살멸시킬 뿐만 아니라 곰팡이, 세균, 기생충란까지 살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편 양돈전용소독제 「안텍 팜플루이드」는 돈사 내외의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회충란 등을 살멸시키고 곤충이나 쥐의 접근을 억제하며, 소독효과가 1주이상 지속되고 분변, 뇨, 기타 유기물의 오염이 심할 때도 소독효과를 그대로 발휘하는 등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이밖에도 소에서 문제가 되는 흡충류(간질충, 쌍구흡충)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빌레본-알정」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는데, 이 「빌레본-알정」은 제제입자마다 특수 락커칠을 함으로써 내약성을 높였고 소의 제1위내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약제의 성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흡충류 구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빌레본-알정」은 이미 국내에서 약제실험과우수한 약제 선발을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소독약 박톨푸러스 판매

한양수의약품은 보다 더욱 강력한 살균, 살바이러스, 살곰팡이, 살효모 작용을 갖는 박톨푸러스를 호평리에 발매하고 있다.

이 박톨푸러스는 이스라엘 아빅사의 독특한 처방에 의해 유기물의 존재, 소독수 또는, 소독 대상의 pH에 관계없이 알칼리나 산성에서도 강력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기업농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톨푸러스는 뉴캣슬, 돈콜레라, 구제역등 많은 종류의 살멸시키고, 바이러스를 슈도모나스

등 일반소독약으로 잘 죽지 않는 세균, 각종곰팡이의 살멸과 발생예방에 매우 탁월하다고 한다.

펠릿사료 시판 개시

완벽한 펠릿사료 생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해표사료(대표 신명수)는 덴마크에 의뢰 설비시공된 생산라인을 가동, 지난 8월 15일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1차 생산품목은 육계전기(크럼블), 육계후기, 젓돈, 육성돈, 어린송아지, 큰소비육II 등이다.

한편 동사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농장 원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썬파워사료를 개발, 9월부터 생산 시판하고 있다.(썬파워 젓먹이, 썬파워 큰소비육II)

골든-솔

우성양행(대표 최영식)이 개발 시판중인 골든-솔(Golden Sol) 수용산제제는 고단위 비타민제로 여름철 더위와 질병, 백신접종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어 산란율, 부화율을 높여 좁은 물론 성장촉진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형제로 락토스와 전해질을 다량 사용할 경우 제품의 정상 및 용해도가 좋아져 양축가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돼 있다.

대용유덴 카비트 생산 개시

동물약품 전문메이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녹십자 수의약품(주)(대표 장인상)에서는 금번 세계적인 대용유 전문메이커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덴카비트(DENKAVIT)사의 노·하우(Know How)를 제공받아 송아지용, 자돈용 대용유를 생산하게 되어 9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는데 양축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M 소독제 4종 발매

이화약품(대표 이정협)은 S&M사의 소독제를 발매하여 곧 시판할 계획이다.

- 라이소콕(Lysococ) : 콕시듐 전문소독제
- 라이소 에스크(Lyso ASK) : 양돈장 내부 기생충 전문소독제
- 올비베틀(Orbivet) : 축사 내부 전문소독제
- 라이소벨(Lysovet)PA : 축사내부 전문소독제

동사는 4종 전문소독제를 서독 SCHÜLKE Und MAYR사와 기술제휴하여 곧 시판할 예정이며 기존 소독제와 개념이 다른 전문화된 소독제로서 가축의 감염성 질병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킨다. 또한 국내 임상 시험을 통해 그 효능의 탁월함이 인정되었고 앞으로 축사위생 소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오펠민(Biofermin)은 돼지 유래 생균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국내에선 동사 유일의 자돈 전문 활성 생균 제제이며 특히 4개월령 이하의 자돈 하리 예방치료에 대하여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본 다케다(TAKETA)사로부터 원료 및 기술을 제공받아 제조 시판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완제품을 출하한다고 한다.

강력 살원충제 싸이그로 시판

유한양행(대표 박춘거)의 최근 살원충제 싸이그로는 최근에 개발된 아이온오포 계열의 항생물질이며 마이신 암모늄의 1% 항콕시듐제로서 아이메리 테일라를 비롯한 모든 콕시듐의 종류에 강력한 살원충성 작용을 갖는 특수한 제제로 일부 문제되고 있는 콕시듐의 내성이나 교체내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제제의 강력 살원충제이다.

수입약품 겐타-F 주사제 판매

삼양약화학(주)(대표 민경우)은 네덜란드의 Do pharma사에서 제조된 「겐타-F」주사제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동제품은 퀴놀론 계열의 새로운 항

균제인 Flumequine 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광범위 항생물질인 Gentamicin의 복합주사제로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그람음성균과 포도상구균의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특히 Flumequine은 기존의 설파제나 항생제와는 전혀 다른 퀴놀론 계열의 항균제로서 현재까지 저항성발현이 보고된 적이 없는 제제이다. 따라서 「겐타-F」주사는 위장관염증, 호흡기계감염증, 및 유방염 등에서 종래의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감염증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코미독스, 텍사에스피 주사 신발매

〈주〉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한화섭)는 사료첨가용 성장촉진 및 하리에방제인 「코미독스」와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함유된 복합항생제인 「텍사에스피 주사」를 개발하여 시판중이다.

「코미독스」는 이미 성장촉진제로서 잘 알려져 있는 오타퀸독스와 가축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량 광물질인 셀레니움과의 합제로 닭과 돼지의 성장 촉진 및 사료효율을 개선, 자돈의 하리에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셀레니움은 근위축증(근육백화증), 목이나 날개 가슴 등에 부종이 나타나 점차적으로 내출혈로 인하여 모세혈관벽의 비정상적인 투과나 몸전체에 혈액이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삼출성 소질, 헤장섬유증과 비타민 E(토코페롤)의 부족에 의한 번식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

포장단위 : 500g, 5 kg, 10kg

「텍사에스피주사」는 복합생물질에 부신피질호르몬제인 텍사메라손을 복합 함으로써 항염 작용이 있어 뚜렷한 상승작용을 나타내며 그람양성균뿐만 아니라 그람음성균에도 작용하는 광범위 항생제이다.

가축의 세균성 신우염, 구내염, 인후두염, 유방염, 자궁내막염, 관절염, 폐혈증에 유효하고 특히 각종 가축의 폐염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낸다.

포장단위 : 50ml 바이알